

‘55조 빛더미’ 소상공인·중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광주·전남 1~5월 대출 2조8382억 늘어도 자금난 여전
정책자금 대출 확대·신산업 진출 지원 등 정상화 도와야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광주·전남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2조8382억원을 신규 대출하면서 대출 잔액이 55조원을 넘겼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문턱은 점차 높아져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광주·전남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예금취급기관 대출 잔액은 55조3226억원으로, 지난 연말(52억4844억원)과 비교하면 5개월 새 2조8382억

원(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5개월 동안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이 새로 대출받은 금액이 3조원에 육박했다는 말이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중소기업 신규 대출액은 광주 1조7402억원·전남 1조980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주 중소기업 신규 대출액은 절반 이상(55.3%)인 9631억원이 예금은행으로 몰렸고, 나머지 7771억원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빌렸다.

전남은 이와 달리 전체 대출액의 68.9%에 달하는 7563억원을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빌렸다.
나머지 3417억원은 예금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광주 4.4%·전남 2.3%로, 전국 평균(4.7%)을 밑돌았다.
반면 광주지역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 잔액 증가율은 11.4%로, 전국 평균(10.5%)을 웃돌았다.
전남 비은행 대출 증가율은 8.9%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김재영 기획금융팀 과장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이후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현황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가운데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정책당국의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

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대출 증가율(18.5%)은 과거 평균(17~19년 9.6%)을 크게 넘어섰으며 광역권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지역 서비스업 대출 증가율은 15.5%로 광역권 중 대전·충남(15.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전남 중소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각 25만6000개, 96만명으로 전국 대비 6.6%, 6.0%다.
지역 내 전체 사업체 및 종사자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99.9%, 92.9%로 광역권 평균(99.9%, 91.3%)을 상회했다.

업종별로 도소매업(7만3000개, 28.3%)과 숙박·음식점업(5만4000개, 21.0%)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운수·창고업(2만4000개, 9.3%), 개인서비스업(2만3000개, 9.1%), 제조업(2만2000개, 8.9%) 순이다.
김 과장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복’을 위해 지역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코로나 확산세 추이 및 경기·고용 흐름을 살펴 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앞당긴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사업재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썸통 더위 속 코로나 의료진 힘내세요

광주은행, 시에 응원꾸러미 1000상자 전달

광주은행은 썸통 더위 속에서 코로나19 증식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을 위해 응원꾸러미 1000상자를 전달하고 21일 밝혔다.
송중욱 은행장은 이날 광주시청을 찾아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재규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에 5000만원 상당 응원꾸러미를 전달했다.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지난해 3300상자에 이어 올해도 직접 꾸러미를 만들었다. 앞서 15일에는 전남도에 수재민 지원을 위한 1000상자를 전하기도 했다.
응원꾸러미는 건강식품과 간식, 즉석식품 등 총 17종으로 구성됐다.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빛고를 전남대병원, 시와 5개 자치구 선별검사소, 아동복지시설 등에 전해진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9월 5000만원 상당, 지난 1월 2500만원 상당의 응원 꾸러미를 기탁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1억원의 성금을 내놓기도 했다.
송 행장은 “우리지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임직원들과 마음을 모았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및 금융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송중욱(오른쪽)은 은행장이 21일 이용섭(가운데) 광주시장에게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응원꾸러미 1000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15.91 (-16.79)
↓ 코스닥	1042.03 (-1.61)
↓ 금리(국고채 3년)	1.383 (-0.027)
↑ 환율(USD)	1154.00 (+3.60)

광주신보-광주우산신탁 대출 금리상한 업무협약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광주우산신탁이 지난 20일 ‘보증부대출 금리상한 업무협약’을 맺고 가산금리를 제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금리상한 적용기간은 기한연장을 포함해 신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이다.
광주신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전

액보증의 경우 ‘정기예탁금 금리(1년)에 1.5% 이내’, 부분보증은 ‘정기예탁금 금리(1년)에 1.7% 이내’의 금리상한을 지키기로 했다.
정부 또는 지자체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근보증 및 기보증회수보증, 금융기관 출연본 협약보증을 받았으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분기 20명...대형건설사 사망사고 빈번

HDC현대산업개발 9명 최다

올 2분기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2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대형 건설사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로 파악됐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2분기 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대형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로, 총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9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한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상가 건물이 붕괴하면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한 영향이다.
이밖에 대우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4월14일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근로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30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판매시설 공사 현장에서 1명이 목숨을 잃어 총 2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또 현대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효성중공업, 두산건설, 대방건설, 에스씨씨이테크건설, 대보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9개 건설사에서 1명씩 근로자가 사망했다.
국토부는 이번 분기부터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사의 하도급사를 공개했다.
하도급사 중에는 한솔기업, 대우에스티, 한강이앤씨, 화원토건, 동신피엔피, 성한건설, 금풍건설이엔씨, 공산건설, 삼광건설 등 9곳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
2분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기관은 한국도로공사로, 4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 사고 등으로 3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4~6월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현장 중 163개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벌여 총 15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으며,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광주TP 2년 연속 1000억 이상 국비사업 유치

광주테크노파크가 2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의 국비사업을 유치했다.
21일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에 따르면 이날 현재 9개 사업, 1200억원 규모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세부적으로 보면 ▲카고드론 기술개발사업(430억원)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350억원) ▲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 적용 실증기반 구축사업(199억원) ▲광주·전남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86억원) ▲스마트가전용 AI IoT SoC 기술개발 사업(77억원)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63억원) ▲기타사업(28억원) 등이다.
여기에 올 연말까지 ‘미래차용 GaN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사업’ (400억원)과 ‘배터리 시험평가 인증센터 구축사업’ (220억원) 등 총 11개 사업을

기획해 총 국비 15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광주TP는 전망했다.
지난해 광주TP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500억원)과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ESS) 발전 규제 자유 특구 조성(195억원), 시니어 코스 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180억원) 등 9건 신규 공모 과제를 통해 1323억원을 확보했다.
2016년부터 3년간 평균 400억원에 그쳤던 국비사업 확보가 2019년 829억원을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선민 광주TP 원장은 “산단 대개조 사업, 인공 지능 산업 육성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광주가 정의의 도시를 넘어 산업, 경제의 도시로 발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大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 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대출상담 환영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관리형 토지신락 사업비 대출 전세(임차)자금 대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충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 입구)